

4월 5 가족 이야기 [202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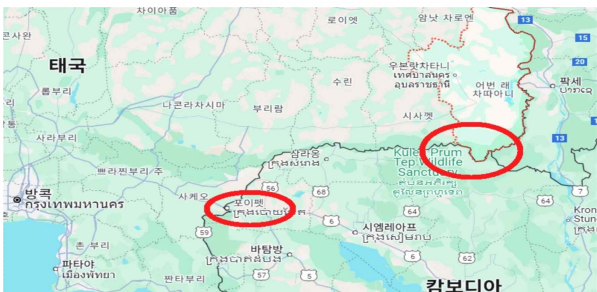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낮에 한바탕 풀을 뜯던 소들이 지나간 자리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가 되면 가족, 친구, 연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간단한 저녁을 즐기는 이곳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노지입니다. 프놈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곧 이 평화로운 땅도 공장이나 주거 단지들이 지어질 것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눈으로 사진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담습니다. 아름다운 노을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출하지만 맛있는 저녁 식사가 있는 이 시간이 행복일 것입니다.

+C국 이슈



< 분쟁지역인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



< C국의 범죄단지 >

현재 C국은 T국과 국경 분쟁으로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세 개 나라(T국, L국, C국) 국경이 접하는 '에메랄드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해 총격전으로 C국 군인 1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국경 통제의 강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국경 이동도 제한되었고 수입품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C국은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T국으로부터 수입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T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우유였는데 모두 긴급히 처음보는 베트남 우유로 교체 진열되었고 이조차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가짜 우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리 훈 마넛은 이 분쟁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군 의무 복무제(18~30세)를 시행을 발표하며 이것을 기회로 삼아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C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국 범죄도시 척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나섰습니다. 거액의 돈을 벌게 해 준다면 한국인을 C국으로 유인, 납치해 폭행과 고문을 일삼고,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이른바 'C국 범죄도시'사건에 정부가 칼을 꺼내 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C국 당국과의 공조와 협상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 범죄 전담 경찰을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감사한 한편 여전히 무법천지를 즐기는 범죄조직이 척결되지 않는다면 C국은 여전히 범죄에 무방비상태일 것이고 또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C국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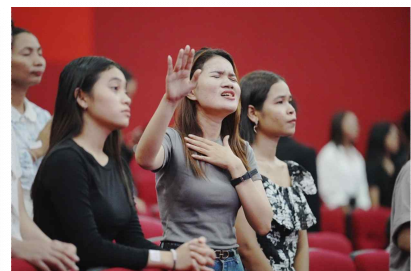
† C국 크리스찬의 구국기도회



< C국 구국기도회 현장 >

지난 달 C국에서는 대규모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 진행된 이 구국기도회는 종교자유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짙은 불교의 색채가 가득한 이 땅을 위한 C국 현지 크리스찬들이 주최 주관하여 진행된 대형 기도회였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참석하였고 저희도 함께 참석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동역자님들께 고스란히 그 감동을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구르는 돌로도 선교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작은 저희에게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는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앞자리에는 이제 태어난지 2달이 된 물리따와 부모가 참석했었습니다. 이 기도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하고 그들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에 2달된 물리따를 안고 이 기도회에 참석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시간도(사진 위 왼쪽)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뜨거운 기도회 순서 중에 가장 가슴 뭉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쯔바몬의 교회를 방문하여 현지 사역자와의 만남때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가끔은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기에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에 마음이 무척 아프면서도 감사했고 축복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 C국 선교 기록사역



C국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온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30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들보다 더 열정적이십니다. C국은 몇해 전부터 모교단의 집중 파송국이기도 하였기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디서든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선교사역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어도 교회가 남았고 선생님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기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C국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선배 선교사님

들의 사역을 이어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서양 선교사님들은 무척 잘 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은 현장이 중심이시다보니 기록에 대한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선교의 붐이 일었던 시대를 이어 들어온 말하자면 2세대 선교사들입니다.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거의 은퇴하시고 계신데 그 자리를 여백없이 메워나가야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C국의 한인선교사회와 기타 공식 행사에 사진, 영상 사역으로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없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지금에도 이 사역 문의가 저에게 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C국의 선교 기록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과 기록으로 남기며 현지뿐 아니라 한국 동역자님들께도 고스란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사역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MAC



올해도 소속되어 있는 NGO(CEAI & AMA)인 **MAC(Mission Alliance of Cambodia)**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C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AI를 매개로 한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주신 C국 선교기록 사역에 대한 마음에 이 AI를 접목하여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C국에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전문직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정부와의 좋은 파트너십 유지에 대한 방법을 토론하였습니다. 인근국인 태국은 종교비자가 있는 나라이고 C국 역시 종교부에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수 있다는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C국에서의 선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깊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 C국의 사랑스런 미래

C국에서 건축을 하려거든 5년 후에도 100여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거든 건축하라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은 사탕 한알만 쥐어줘도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모두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쥐어준 것은 그저 사탕이지 **쁘레아 예수**가 아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정해진 학교도 있고 무작정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스런 아이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아이들은 어김없이 키 큰 외국인(?)이 **‘쁘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예수님은 너를 사랑해)’**이라며 주는 과자에 행복해합니다. 5년 후에 두어명만 남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성전에 이 아이들이 뛰어 들어와 즐겁게 찬양하도록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 행복으로의 초대



청년들을 만날 때 찾아가 카페나 집으로 초대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주는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모임 장소, 혹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크기가 작더라도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논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기독교는 종교보다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찾아 오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커져서 작지만 시선을 끌기 좋고 월세는 조금 높지만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저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파송교회를 위한 기도

하루는 아내가 친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파송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걸까요?' 아내와 저는 저희 파송교회를 선교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소속된 선교회에 아뢰면 또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재정의 지원을 떠나 파송교회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크다며 파송교회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파송교회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도 저희 가정이 이 땅에 깊게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양분이 되어주는 존재로 함께 가야합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를 위해 집중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C국 선교를 위해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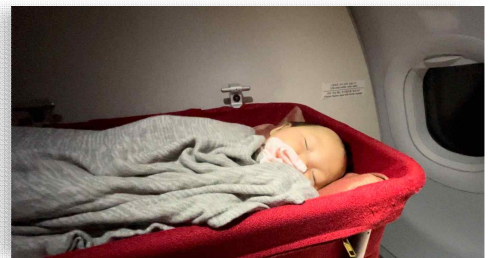


+ 아이들의 단기선교

첫째 예서와 둘째 예나가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시하눅크) 지난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이 모여 두 아이를 위해 함께 손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예서는 이전부터 MK언니 누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MK아이들을 몰고 다니던 실력을 이번 단기선교 조장을 맡으며 발휘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C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오랜 꿈이 구체화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 캠핑매트

저희 가족이 처음 C국에 왔을 때 막내 예흠이가 기어다니던 때였습니다. 처음보는 아기 바구니를 타고 C국에 도착한 예흠이를 위해 계단이 없고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할 때 저희 가족은 C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작은 주택같은 층마다 좁은 공간을 3층정도로 올려 사는 구조의 하우스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불박이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캠핑 매트에서의 생활이 벌써 2년이 되어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매달 하나씩 사서 살림을 늘려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캠핑온 것 같아서 좋아하던 아이들은 불평하지는 않지만 더이상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은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침대가 생기지 않았나보다. 새 집에 가면 생기겠지?' 하며 캠핑매트를 접을 날을 기대했습니다. 새롭게 옮기는 거처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1. 훈련하고 있는 다음 세대 제자들이 이 땅의 선교사 그리고 아세안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 부흥의 바람이 이 땅 가득히 불어오게 하소서..
3. 고통받는 소외계층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4. 어려워진 국경이 안정되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소서.

Ye's Fam을 위한 기도

- 1,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더욱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일찍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 함께 선교에 동참할 파송교회(후원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어 C국을 향한 기도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3.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좀 더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완벽히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4. 함께 있는 피지씨와 쓰라이 리어를 비롯한 현지인들과 영적 교제를 지속하며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5. 정기 예배. 모임의 적당한 장소를 하루빨리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의 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6. 새학기부터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의 학업이 끊이지 않도록 환경에 주님이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7. C국의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 후원문의

파송단체 : 바울선교회 063.254.8418

이메일 : hsson77@naver.com

카톡ID : hsson77 / GorgeousRiver

연락처 : 855.96.741.2375 / 855.16.35.7755

손형식, 이가랴 선교사

예서, 예나, 예현, 예온, 예흠 자녀 선교사 드림